

제목: ‘한국학 자료 연구를 위한 학생·포스닥 워크숍 in Seoul’ 참가기

이름: 민동엽

소속: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2 학년

전공: 지역문화연구전공(2016년 3월 현재)

2016년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한국학 자료 연구를 위한 학생·포스닥 워크숍 in Seoul’이 개최되었다. 나는 평소 패전직후 일본의 ‘조선 문제’, 혹은 ‘식민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야를 넓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의 포스트식민지 시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른바 동아시아의 "식민지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 고찰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한국의 자료관과 연구소를 방문해 자료관에서는 어떤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료를 조사·수집·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되고, 또 연구소에서는 어떤 연구가 어떤 시점으로, 어떠한 사회적 요구로부터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여 워크숍 참여를 결심했다. 이번 경험은 한국의 한국학, 나아가서는 일본 및 동아시아 연구현황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22일에는 한국 성남시에 위치한 세종 연구소와 국가 기록원을 방문했다.

1983년 량군테러사건을 계기로 조직된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정부기관에 외교정책을 제안하고 차세대의 외교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연수를 실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날에는 먼저 이상현 연구기획 본부장의 강의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와 외교안보연구 동향’을 통해서 세종연구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정책안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그러한 이야기 중에서, 좋은 정책안을 제시하기 위한 조치로, 연구소의 통일된 방침을 정하지 않고 연구소가 소속된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가능한 장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상에 남았다. 현재 북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세종연구소의 북한관련 소장자료들도 직접 열람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세종연구소 바로 옆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서는, 직원분이 직접 자료의 보존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보존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 과정을 견학하면서 설명해 주었다. 연구자료를 실제로 다루는 사람으로서, 내가 열람하고 있는 자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보관되는지에 대해서, 평소에는 많이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지만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자료보존방법(특히 역사 자료의 복구작업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까지는 보이지않는 여러 분들의 노력이 존재하고 있음에 다시금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

23 일에는 과천시에 위치한 국사편찬위원회를 찾았다. 이 곳은 정부가 운영 주체이며 주로 한국의 국사를 편찬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다.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여러 데이터들의 활용법에 대해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실제로 검색해 본 결과, 일본에서도 구하기 힘든 패전직후의 재일코리안과 관련된 자료도 이미 디지털화 되어있었으며, 그 자료들의 막대한 양에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리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한국사 관련자료의 수집·정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반면에, 현대사 자료들은 다른 시기의 역사에 비해서 아직 수집되지 않은 자료들이 많다고도 느껴졌다. ‘현대사’(해방 후)가 아직 ‘역사’로서 정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그런 경험이었다.

23 일 오후에는 서울시에 위치하는 국민대학교 일본연구소를 찾아 한국에서의 일본연구소의 역할과 함께 실제로 어떤 교육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유미나교수님의 강의 '자료검색 방법과 연습'에서는 역사자료의 사용법 및 활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또 역사연구의 의의 등에 대한 귀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역사 연구자를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또 강의 후에 개최된 국민대학교 학생들과의 교류회에서는 한국의 '일본학'교육에 대해서 직접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워크숍 마지막날인 24 일에는 서울시에 있는 외교사료관을 찾아갔다. 직원들의 설명과 질문응답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외교사료관의 특징, 예를들면 미국이나 일본 외교사료관과는 달리 역사 연구자가 아닌 문헌정보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료의 이용과 보존을 중점적인 업무로 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에 남았다. 또한 외교사료관에서는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고 있으며 다채한 시민들의 참여행사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외교사료관에서는 외교관계의 공문이 공개되기까지 어떤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솔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참가한 다양한 영역의 "한국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과 여러가지 연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유익한 경험이었다고 생각된다. 워크숍에서 경험한 것들은 앞으로의 연구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될거라고 믿는다.